

2024 09

제236호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대덕구 홈페이지 E-BOOK으로 연결됩니다.

대덕 라이브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2022 사진공모전 수상작
장동 / 이순정님작

대덕 라이프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대덕라이프 제호 서체 : 글고운 캘리그라피 박진희 作

- 02 좋은글, 좋은 시
- 03 추석인사
- 04 구정소식
- 05 제23회 대청호마라톤대회
- 06 대덕구 맛집을 찾아서
- 07 [대덕구기관장협의회] 이정상 대전보훈병원장
- 08 열린의정
- 10 [인물 인터뷰] 오춘녀 새여울예술단장
- 11 대덕톡톡

일진(日辰)

김지원(시인, 대덕문학회 회원)

일 년 신수

훤하게 펴다는 계룡산 할멈
백년대계 신통력이 진짜인가
지난 세월 다 본다는 태백산 할아범

헛소리 몇 마디 하고

오늘은 대길

아는 길도 물어가는데
너울너울 말이 춤춘다

오늘 할 일은

구름으로 가려진 산길을

혼자 걷는 것

일진이 좋은 건가



* 대덕라이프에 게재되는 시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됩니다.

발행인	대덕구청장
편집인	기획홍보실장
발행처	기획홍보실(TEL:608-6603 / FAX:608-3811)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홈페이지	www.daedeok.go.kr
발행일	2024년 9월 5일(제 236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유난히 비가 많이 오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여름이 우리 곁을 떠나고 어느덧 살며시 부는 바람 속에서 가을의 향기가 느껴지는 추석 한가위가 다가왔습니다.

추석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들뜨고 설렙니다. 특히,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선물해 주는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는 오래된 추억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가족, 친지, 이웃과의 따뜻한 만남과 행복한 이야기가 넘치는 순간들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추석과 함께 펼쳐지는 가을은 알차게 영근 열매로 결실을 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간 땀흘려 수고하신 구민 여러분의 삶도 더욱 풍성해지고 알찬 열매 맺으시길 간절히 기원 합니다.

올 한 해 대덕구는 구민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과 격려 덕분에 기대 이상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뒀습니다. 여러분의 꿈과 대덕의 희망이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풍요롭고 넉넉한 추석을 맞아 고향길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대덕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9월

대덕구청장



걸어서 대덕속으로

계족산 황톳길

계족산 황톳길은 산불방지와 산림사업 능률화를 위해 개설한 계족산 임도에 2006년부터 지역기업인 (주)선양소주(舊 맥키스 컴퍼니)에서 황토 2만여톤을 투입해 맨발걷기라는 건강테마로 산책길을 구성, 전국적 관광 명소로 부상한 곳이다.

계족산 숲속 황톳길은 국내 그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자연이 주는 건강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계족산, 대청댐과 더불어 반드시 가보아야 할 대전 대덕구의 관광 명소로 해발 200~300m에서 펼쳐지는 14km의 황톳길을 걷거나 뛸 수 있어 심신의 휴식을 취하기에 제격이다. 특히, 봄, 가을에는 자전거를

타며 계족산의 경치를 즐기기 위해 전국에서 하이킹 마니아들이 몰려들고 있다.

매년 5월 '계족산 맨발축제'를 개최하며, 4~10월 매주 주말 계족산 숲속음악회장에서 맥키스오페라 '뻔뻔(fun fun)한 클래식 공연'과 사진전시회, 맨발도장찍기 등 다채로운 주말 무료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계족산 숲속 황톳길은 △한국관광공사 선정 한국관광 100선, 5월에 꼭 가 볼만한 곳은 물론 △여행전문기자들이 뽑은 다시 찾고 싶은 여행지 33선 선정 △KBS 1TV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대표적인 맨발 걷기 장소로 소개된바 있다.



대전 대덕구 덕암동 새일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선정

연면적 4300㎡·지하 2층~지상 1층 규모
생존 수영센터·도서관·돌봄교실·주차장 등 조성

대전 대덕구는 교육부 '2024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에 (가칭)새일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은 학교의 유·폐기 부지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교육·복지·문화·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구는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7월 대전시교육청·대전동부교육지원청·새일초등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육부에 학교복합시설 공모를 신청했다. (가칭)새일복합문화센터는 새일초등학교 부지에 연면적 4300㎡, 지하 2층~지상 1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지하 1층 생존 수영센터, 주차장, 도서관 △지상 1층 도서관, 북카페, 돌봄교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가칭)새일복합문화센터에 들어설 도서관은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연계해 특화설계 제한 공모를 통해 외부에는 KAIST에서 개발한 한국 최초의 2족 보행 로봇 '휴보(HUBO)' 조형물을 설치하고, 내부에는 다양한 용도에 맞춰 쓸 수 있는 가변형 공간을 설치, 학생들과 주민들의 지식 함양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돌봄교실은 그린 스마트 교실과 친환경 건축기법을 적용해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으로 학생들이 머물고 싶은 미래형 공간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학교복합시설 공사는 2025년 건축기획 설계 및 실시 설계를 시작으로 2026년 착공, 2028년 완공이 목표다.

한편 구는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대전시교육청과 복합시설의 시행·관리·이용 및 소유권에 대한 세부적인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대덕구 석봉도서관, 정여울 작가 초청 특강 개최

오는 26일 '마음을 치유하는 감수성 수업' 주제

대전 대덕구는 9월 독서의 달을 기념해 오는 26일 석봉도서관에서 정여울 작가를 초청해 강좌를 개최한다.

'문학이 필요한 시간', '나를 돌보지 않는 나에게' 등의 저자이자 문학평론가로 유명한 정여울 작가는 최근 집필한 신간 도서 '감수성 수업'을 중점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감수성 수업'이란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정 작가는 넘쳐나는 온갖 콘텐츠와 자극 과다의 시대 속에서 현대인들이 감수성을 점점 잃어가는 현실을 지적하며, 슬픔뿐 아니라 여러 감정을 재료 삼아 삶을 걸작으로 만들어 주는

'감수성'을 어떻게 느끼고, 깨닫고,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정여울 작가 특강은 대덕구 도서관 홈페이지(lib.daedeok.go.kr) 또는 전화(☎042-608-6282) 등을 통해 선착순 모집한다.

강의는 석봉도서관 1강의실에서 오전 10시~12시까지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대덕구청소년어울림센터 응급처치교육 확대 추진



센터 이용 회원서 지역주민 대상... 심폐소생술 등 실습 교육 진행

대덕구청소년어울림센터는 무료 평생교육 상설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인 '응급처치(심폐소생술)교육'을 기존 회원 대상에서 지역주민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해 교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덕구청소년어울림센터(이하 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 4월부터 안전 관리를 최우선 가치로 여겨 종사자와 이용 회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진행해왔다.

교육은 응급처치 이론 및 심폐소생술(CPR) 실습용 마네킹과 자동심장 충격기(AED)를 활용한 실습으로 이뤄졌으며, 교육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 자신감이 생겼다', '각 동별 홍보를 통해 지역주민에게도 교육 기회를 제공했으면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센터는 회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대상으로도 응급처치교육을 확대 실시해 센터의 안전망 구축과 더불어 지역사회 안전의식 확산에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대덕구청소년어울림센터 관계자는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정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지역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심폐소생술 교육을 희망하는 대덕구 주민과 단체는 센터로 전화 문의(☎042-626-7728)하면 된다.



대덕종합사회복지관·나누미후원회 마을환경축제 '내가그린신탄진' 개최

오는 28일 덕암동 새뜰어린이공원서 진행

환경 놀이·환경 만들기·분리배출 교육 등 프로그램 '다채'

대덕종합사회복지관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덕암동 새뜰어린이공원에서 '내가그린신탄진' 환경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나누미후원회와 함께하는 마을환경축제 '내가그린신탄진'은 주민들이 참여 주체 또는 참가자로 참여해 함께 어울리고 환경에 대한 인식을 키우는 '지역 주민 주도형 환경축제'다.

축제는 동네 아이들이 직접 운영하는 △업사이클링 환경 놀이 △실외 낚서 놀이터 등 '환경 놀이 부스'와 △파뿌리 심기 △병뚜껑 걱정 인형 만들기 등 '환경 만들기 부스' △환경 인형극 △탄소중립 놀이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복지관은 '스탬프 챌린지'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스팸프는 △페페트병 10개 지참 △5개 환경 부스 참여 △분리배출 교육 참여 시 받을 수 있다.

장용걸 나누미후원회 회장은 "우리 주민들이 '내가그린신탄진' 축제에 마련된 다양한 환경 부스 체험을 통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고, 일상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함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제23회
대청호
마라톤대회

가을 정취 가득한 대청호를 달리다
제23회 대청호마라톤대회, 다음달 20일 개최



23TH DAEACHEONGHO MARATHON

10월, 가을의 절정을 맞아 대덕구에 3500여 명의 달림이(이하 러너, runner)들이 모여 함께 달린다.

대덕구는 내달 20일 ‘마음가득 사랑담고 달리자’라는 주제로 ‘대청호 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23회째를 맞은 대청호마라톤대회는 가을을 한가득 머금은 대청호의 풍광을 배경으로 달리기를 처음 접하는 초보자부터 꾸준히 마라톤을 즐기는 러너들이 참가하는 대회다.

이번 제23회 대청호마라톤대회는 지난 7월 1일 접수를 시작해 접수 마감이 이달 6일까지였으나,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전 종목이 마감됐다. 특히 하프코스의 경우 기존 500명에서 1000명으로 추가 모집을 진행 했음에도 순식간에 마감돼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러너들은 오는 10월 20일 오전 8시 30분까지 대청공원 집결해 9시부터 코스별 10분 간격으로 출발하게 된다.

이번 대회 종목은 크게 ‘건강코스(5km)’, ‘미니코스(10km)’, ‘하프코스(21.0975km)’로 구성됐다. 코스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건강코스(5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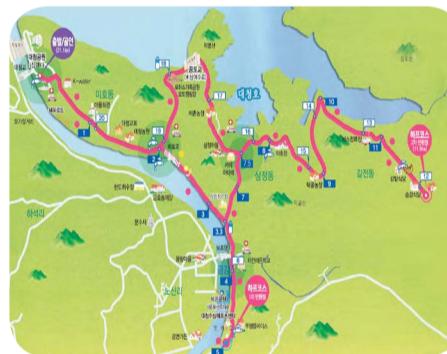
건강코스는 마라톤을 처음 접하는 러너들이 입문하기 좋은 코스다. 가족, 연인, 친구들과 대청호의 풍광을 즐기며 달릴 수 있다. 건강코스 러너는 9시 30분에 출발하며, 대청공원에서 출발해 미호마을, 비상여수로, 미호교 반환점을 돌아 원점 회귀하는 코스다.

● 미니코스(10km)



대청호마라톤대회의 중추 코스인 미니코스는 대부분 평지로 구성돼 마라톤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러너들에게 좋다. 대청 공원에서 출발해 미호마을, 미호교, 삼정취수장, 에코공원을 왕복하는 코스로 구성돼 있다.

● 하프코스(21.0975km)



금강과 대청호를 연결하는 하프코스는 9시에 가장 먼저 출발한다. 출발 후 6km 지점에 600여 미터의 고갯길이 있다. 이 고갯길의 고비를 넘기면 대청호의 탁 트인 전경을 바라보며 달릴 수 있다. 코스는 대청공원, 미호교를 지나 1차 반환점인 대청대교를 건너 삼정취수장, 갈밭식당을 지나면 2차 반환점인 송강식당을 지나게 된다. 이후 비상여수로와 미호마을을 지나면 도착하게 된다.

종목별 하프코스는 2시간 30분, 미니코스는 1시간 30분, 건강코스는 1시간의 시간제한이 있으며, 신청 코스와 다른 코스를 달리거나 부정 행위 적발 시 실격 처리 된다.

이번 대회 참가자 전원에게 기능성 티셔츠를 지급하며, 완주자 전원에게 기록증과 완주 메달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대회 당일 11시 코스별 시상식이 진행된다.

코스별 1위부터 5위 남, 여로 나눠 총 30명을 시상한다. 건강코스 1등에게는 10만원 상품권과 상장, 미니코스는 20만원 상품권과 상장, 하프 코스는 50만원 상품권과 상장을 시상할 계획이다. 또한 단체참가상도 마련됐다. 다만, 건강코스 또는 학생단체 참가자는 제외된다.

구는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대회 당일 20일 오전 7시~8시 30분, 11시 30분~13시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탑승 장소는 용정초교 뒷길, 대전보훈병원 주차장, 두두당, 투썸플레이스 신탄진대청호점, 신탄진역 맞은편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다.

23회 대청호마라톤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러너가 코스와 주의 사항을 숙지해 가을을 한껏 머금은 대청호와 금강을 배경으로 행복하게 달리길 바란다.

우리지역의 맛집을 찾아서



포근한 인심과 엄마의 손맛 석봉동 '광주골'

- 대전 대덕구 덕암북로 37 1층 B동(석봉동 314-1) / 042-932-0106
- 2인기준 메뉴: 짜글이찌개 2만원(공기밥 별도), 갈치조림 2만8000원, 고등어조림 2만6000원. 동태찌개 2만원
- 1인 메뉴: 김치찌개 9000원, 된장·청국장·순두부찌개 8000원
- 영업시간: 11:00~22:00 / 연중무휴



음식을 그릇에 담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를 알 수 있다. 장사가 잘되는 식당을 보면 밑반찬만 나왔는데도 상이 꽉 찰 정도로 푸짐하다. 더구나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는 더욱 쉽게 각인되기 마련이다. 친정어머니께 물려받은 손맛과 넉넉한 인심으로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대전 대덕구 석봉동 '광주골(대표 위미숙)'은 지난 2010년 현재 위치에 문을 열어 14년을 이어오고 있다. 광주골은 찌개·조림 메뉴를 기반으로 가격과 맛, 그리고 푸짐함까지 삼박자를 고루 갖춘 맛집이다. 두툼한 돼지고기와 각종 채소가 어우러져 매콤하고 칼칼하면서 진한 국물이 일품인 짜글이찌개와 통통한 갈치살과 칼칼하고 담백한 양념이

제대로 스며든 풃 익은 무로 가득한 갈치조림은 그야말로 밥도둑이다. 또한 풍성한 밥상은 10가지가 넘는 밑반찬으로 백반의 화룡점정을 짹는다. 파김치, 시래기무침, 어묵볶음, 계란부침, 감자볶음, 애호박무침, 멸치볶음 등 매일 다른 반찬을 만들어 내놓아 손님들이 똑같은 반찬에 질릴 일이 없다. 특히, 위 대표의 남편이 해마다 봄철 나물을 채취해 공급해 주고 있어 제철나물 맛집으로 유명하다. 사실, 위미숙 대표는 광주골 개업 이전에 인근의 대덕산업단지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등 20여 년 넘게 음식점을 운영한 베테랑이다. 별도의 직원 없이 위 대표 혼자 주방과 홀을 오가며 넉넉히 감당해 내고 있다.

남편과 딸이 각각 외지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 가족들의 손을 빌릴 수 없다는 위미숙 대표는 손님들에게 무한감사함을 느낀다고 한다. '광주골'이라는 가게 이름처럼 고향이 광주인지 문자, 위 대표는 '부산'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다만, 남편과 친정어머니 고향이 광주라고 답했다. '전라도 밥상이 맛도 있고 푸짐하다'라는 옛말처럼 위 대표의 음식 솜씨는 친정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타고난 손맛이라는 확신이 든다. 실제, 주방 입구에 걸려있는 '친정엄마 밥상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현판 글귀가 이를 대변해 주고 있다. 넉넉한 인심과 탁월한 맛,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손님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광주골에 방문해 보는 건 어떨까.

26년간 한자리 지킨 노포(老鋪)빵집 석봉동 '빵굽는나라'

- 대전 대덕구 석봉로 38번길 2(석봉동 183-2) / 042-932-9893
- 갈릭바게트 4900원, 페스츄리식빵 4800원. 몽블랑 5500원, 소금빵 2300원
- 영업시간: 07:30~22:00 / 연중무휴



대전 대덕구 석봉동 신탄진시장 건너편 골목 초입에 자리 잡은 빵굽는나라(대표 김광수). 이곳은 소박하고 아담한 외관에 테이블 없는 테이크아웃 전문 제과점이지만 정성 가득한 맛과 지속적인 신메뉴 개발로 신탄진 지역 주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빵' 맛집이다. 지난 1998년 이곳에 터를 잡은 빵굽는나라는 30년 가까이 오직 한자리를 지켜온 노포(老鋪) 빵집이다. 크루아상, 바게트, 소보로빵, 단팥빵 등 기본적인 빵부터 소금빵, 어니언베이글, 크림치즈와 계인, 크로크무슈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빵은 물론, 나이와 취향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시켜 만든 자체 개발 빵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인공적인 효모 이스트 대신 밀에 함유된 미생물이 자연 배양돼 발효를 일으키는 천연 발효종을 사용해 빵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만든 빵은 치즈나 김치처럼 발효되면서 생긴 유익균을 가지고 있어 담백하고 깊은 풍미와 함께 소화가 잘되는 등 좀 더 건강한 빵이 된다.

김광수 대표는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 속에서도

빵굽는나라가 주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굳건히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이 천연 발효종 빵이라고 소개했다.

천연 발효종은 일일이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데다 자연적으로 미생물이 발효되기를 기다려야 하므로 최소 반나절 이상 걸린다. 그 때문에 당일 만든 빵이 어느 정도 판매되면 곧바로 다음 날 새벽에 사용할 빵 반죽을 만들어 저온 속성에 들어간다. 빠른 시간에 똑같은 맛과 품질의 빵을 생산해야 하는 프랜차이즈에서는 도입이 쉽지 않은 제조법이다.

내외부 모두 단정하고 깔끔한 빵굽는나라는 대전시로부터 위생 관리 '좋음' 등급을 받은 것은 물론, 대덕구와 대전시에서 여러 차례 표창장을 받을 만큼 지역에서도 인정받는 동네 빵집이다. 개업 이후 줄곧 '당일 생산, 당일 판매' 원칙을 생명처럼 지켜왔다.

또한 빵굽는나라의 빵은 프랜차이즈 빵집 대비 20~30% 저렴할 뿐만 아니라 김 대표 부부의 친

절함까지 더해져 늦은 오후가 되면 그날 만든 빵이 전부 동이 날 정도로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1964년생인 김광수 대표의 제빵 경력은 무려 45년에 이른다. 가난을 딛고 일어서야 한다는 본능적 의지 하나로 15세 어린 나이에 무작정 빵집에 취직해 어깨너머로 제빵 기술을 익혔다는 김 대표는 "지금까지 제빵 외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만든 빵을 맛있게 드셔준 손님들의 변함없는 사랑의 힘이었습니다"라고 회상했다.

김 대표의 뒤를 이어 아들 김정준씨도 '대한민국 제과기능장'을 취득하는 등 현재의 그 자리에서 가업을 잇고 있다. 특히, 아들 정준씨는 '제과업의 특성 자체가 늘 새롭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아버지의 45년 장인정신을 늘 가슴에 간직하며 새로운 빵 개발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광수 대표는 "고객들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빵을 드리겠다는 초심을 잊지 않고 변함없는 맛과 정성을 이어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대덕구기관장협의회 이정상 대전보훈병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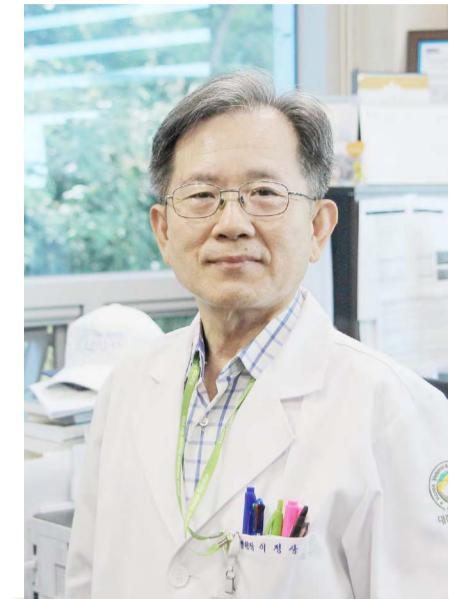


대전보훈병원은 지난 1997년 11월 개원 이래 '보훈(報勳)'이라는 의미에 맞게 대전·세종·충청권역 국가유공자 등 18만 명의 보훈 가족과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 있다.

2023년 11월 제10대 병원장으로 취임한 이정상 병원장은 지난 1년여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재활 특화 진료 등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진력하고 있다. 이에 대덕라이프는 이정상 대전보훈병원장을 만나 대전보훈병원 소개 및 운영 방향,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이정상
대전보훈병원장



Q 병원명에 '보훈'이라는 단어가 붙여져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전보훈병원의 주요 역할과 강점을 간략히 소개해 주신다면?

대전보훈병원은 '보훈(報勳)'이라는 의미에 맞게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사람과 그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위해 설립된 공공 의료기관입니다.

1997년 11월 개원 이래 대전·세종·충청권역 국가유공자 등 18만 명의 보훈 가족과 지역 주민의 진료와 건강을 책임진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26년 만에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완료해 387병상 규모의 최신 입원시설과 환자 중심의 쾌적한 진료 공간을 갖췄습니다. 또 재활 센터 및 국가지정음암병상을 개원해 지역 필수 의료 충족을 위한 최선의 환경을 구축한 것은 물론 의료기관 4주기 인증을 통해 의료서비스 수준을 대외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앞으로도 필수 의료와 강점 진료 강화에 더욱 매진해 보훈 가족과 지역 주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Q 2023년 11월 신임 병원장으로 취임 이후 이루신 성과 및 차별화된 진료 시스템 등을 소개해 주신다면?

지난해 병원장 취임 직전 40병상 규모의 중부권 최고 전문 재활센터를 오픈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빠른 치료가 필요한 급성기 진료와 전문 재활 센터의 연계를 확대해 재활 특화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5월에는 환자 수요가 많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85병상에서 120병상까지 확대해 간병비 절감과 질 높은 전인간호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기획재정부로부터 복권 기금 40억 원을 지원받아 내년 말까지 주차장 125면을 증설해 총 688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등 고객 편의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Q 대전보훈병원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 및 사회 공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대전보훈병원은 우리 병원의 강점을 활용한 의료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동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 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보건 다학제팀을 활용해 고혈압, 당뇨, 치매, 치아 관리 등 찾아가는 만성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병원 내원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가정 간호 서비스, 가정형 호스피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굴, 공동으로 해결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전지역문제해결플랫폼'을 활용해 △어린이 안전길 조성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민들과의 상생(相生)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공공기관으로서는 유일하게 대전시 주관 '2023년 자원봉사 우수기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Q 향후 병원 운영계획과 대덕구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대전보훈병원은 개원 후 국가유공자와 지역 주민 진료의 중추 의료기관으로서 27년간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387병상 규모의 종합 병원으로서 MRI와 CT, 혈관 조영 촬영기 등 최신식 의료 장비와 실력 있는 의료진을 보유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전보훈병원은 모두의 건강을 섬기고 끝까지 돌보는 자세를 기본 철학으로 삼아 수준 높은 의료 역량과 따뜻한 진료를 제공하는 모두의 보훈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전보훈병원에 대한 대덕구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대변자 대덕구의회 '최선'

**전반기 언론 기고 활동 16건
구민목소리 확장·공론화 효과
현안·문제해결 제언 등 담아**

대덕구의회는 ‘대덕구민의 대변자’란 엄중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과 이익 그리고 구민 복리 증진에 단호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9대 의원들의 경우, 5분자유발언과 구정질문 등 회기 때뿐 아니라 언론 기고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구민의 목소리를 더욱 확장시키고 의제로서 공론화 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기고에는 지역 현안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뿐 아니라, 건설적이고 애정 담긴 비판과 지적이 담겼다. 전반기 동안 모두 16건의 기고가 선보였는데, 의원별 대표 기고를 간추려 소개 한다.

<편집자 주>

▶ 김기홍 의원-‘한숨’ 깊어지는 소상공인,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눈높이에 맞춘 지원 정책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단기적이고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금융 지원이다. 이는 카드·배달 수수료 지원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다만,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우선지원대상을 특정해야 할 것이다. 또 대덕뱅크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사업 수요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상공인 등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단계적·체계적 지원이 가능한 성장지원센터가 필요하다. 예비창업자에게 상권 분석·교육을 벌여 창업 실패를 최소화하고 기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겐 경영 개선을 위한 비·과밀 업종 전환 컨설팅·디지털 활용 교육 등을 제공 할 수 있다.

셋째, 아파도 쉬지 못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휴식 지원이다. 이들에게 휴가 비용을 일부 지원하거나 임시 대체 인력을 지원한다면,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김홍태 의원-나는 연탄입니다



“저기 연탄 온다” 오랜 기간 연탄봉사를 다니다 보면 으레 들을 수 있는 말이다. 필자를 보고 연탄이 배달 올 것이란 기대감일 것이다.

필자는 대전연탄은행을 통해 연탄봉사에 함께하고 있다. 대전연탄은행은 2005년 11월을 시작으로 매년 각계각층의 후원과 봉사 참여로 17년째 온정의 손길을 뻗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후원과 봉사 참여가 줄고 있는 모습이다. 감히 봉사 참여를 권유코자 한다. 봉사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울림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다.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의 이웃을 위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성찰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울림의 방향이 자신을 향해 있기에 스스로를 구원한다고도 볼 수 있다.

봉사는 거창하지 않다. 이웃을 향한 따스한 시선과 말 한마디, 위로되는 공감과 지지로 시작할 수 있다. 우리네 삶 곳곳에서 조용하면서 묵묵히 활동 하는 모든 봉사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박효서 의원-신탄진은 변신이 필요하다 ‘신(NEW)트럴파크’로



현대사회의 공공복지 개념과 매우 유사한 공원, 대덕구 도시공원 조성에 최적인 장소를 추천하고자 한다.

우선 금강 현도교와 대청대교 사이 둔치가 있다. 현재 민원과 건의가 지속해서 들어오는데, 정리되지 않은 산책로 주변 풀로 우범 지대로 느껴진다는 우려와 운동과 휴식을 겸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돼야 한다는 요구가 그 내용이다. 이곳에 공원 설계부터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참여가 이뤄진 공원이 조성된다면 모두에게 사랑받는 공원이 될 것이다.

이어 남경마을이다. 인입선로 이설 후 남는 폐철길은 우범화가 우려되기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 폐철길을 활용해 성공한 대표 사례로는 서울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탄생한 서울 연남동 경의선 숲길이 있다. 미국 센트럴파크와

연남동 이름을 따 ‘연트럴파크’라는 별칭을 얻었다. 남경마을 폐철길이 연트럴파크와 같이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신(NEW)트럴파크’로 조성되길 바란다. 나아가 관광산업으로 개발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양영자 의원-저출생 문제, 결혼과 출산 망설이지 않도록 지원 절실



결혼 적령기에 들어선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2024년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에서 응답자 대부분은 경제적 조건과 일, 가정양립 지원 조건이 개선된다면 결혼과 출산 의향이 보다 긍정적으로 바뀔것이라고 응답했다. 경제적인 조건이 가장 큰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저출생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선 청년들이 결혼할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젊은 가정을 위한 주거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 주거 안정성은 가족 계획을 세우고 장기적인 미래를 계획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다. 주택구입 비용 지원 등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년들이 출산을 망설이지 않도록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경제적으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며, 구조적으로 공공 보육서비스 지원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유승연 의원-북대전 악취문제 이대로 안 돼



많은 노력에도 대덕산단이 위치한 목상동 일대 주민들은 악취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대전시악취관리시스템에선 이 지역 악취 농도가 대체로 양호 상태로 나타나지만, 주민모니터링에선 가장 강한 강도로 표시된 경우가 적지 않다. 문제 해결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소개한다.

첫째, 악취 저감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북대전 일대 악취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악취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선 원인 의심 시설과 주민 간 불신만 초래할 뿐이다. 둘째,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재정 문제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일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대전시에선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셋째, 대전시 악취관리시스템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실시간 악취 수치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지점·주요 도로에 전광판을 설치해야 한다.

끝으로 단속과 행정처분이라는 일시적 방편보다는 근본적인 악취 개선을 위한 기업의 시설투자 노력, 정부의 기술지원,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이준규 의원-대덕구 문화인프라 확충에 지원과 관심을



오정권역(오정·대화동)은 도서관과 복지관이 구축돼 있지 않은데, 이를 시설이 있는 타 권역으로의 접근성도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오정근린공원 조성 사업이 최근 지방소멸대응기금 20억 원을 확보하면서, 본격 추진을 앞두고 있다.

오정동과 대화동 경계에 위치한 오정근린공원은 북쪽으로 주거지 및 대전산업단지, 남쪽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과 인접해 있다. 공원 조성을 통해 이곳 주민들이 도심 속 작은 숲으로 불리는 공원에서 여유와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역부족인 문화복지인프라 확충 면에서 복합문화공간 조성 필요성이 제기된다. 복합문화공간은 교육, 문화, 복지, 체육 등 다양한 영역을 접할 수 있는 지역 랜드마크로서도 역할을 한다.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며 공간이 아닌 '문화'로서 거듭나고 있다. 사업 과정에서 오정동과 대화동 주민들의 문화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문화복지프로그램도 지원해야 할 것이다.

것이다.



전석광 의원-대전·충남 혁신도시 계획 정상화 필요



대덕구 연축지구는 2020년 10월 '2기 혁신도시'로 대열에 합류했다. 조속한 2기 혁신도시 진행을 위해 몇 가지를 제언한다.

정부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로드맵을 하루빨리 제시해야 한다. 혁신도시 목적은 공공기관·지역대학·기업 등과 협력해 지역혁신 역량을 높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는 역대 최대인 70만 명을 넘어섰다.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혁신도시로의 인구 재배치가 필요하다.

이전 공공기관 선정 시 '우선 이전 선택권'을 고려해야 한다. 대전은 세종시 출범을 이유로 공공기관 1차 지방 이전 대상에서 배제돼 도시발전과 인구 유입 기회를 박탈당했다. 기존 혁신도시와 균형을 맞추고 비혁신도시와 차별성을 둬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좋은 일자리와 기회를 고르게 보장받고 생활에 불편과 불합리를 느끼지 않도록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모습이 요구된다.



조대웅 의원-대덕구, 폰트로 브랜딩



대덕구 폰트 개발 제안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공공의 이익이다. 폰트 합의금 장사는 일부 폰트 저작권자가 약관에 깨알 같은 글씨로 비영리 사용 조건을 포함한 뒤 배포해 이용자에게 막대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창작자 입장에선 아무리 신경을 써도 이용 권한에 따라 달라지는 유·무료 범위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대덕구 폰트를 개발해 공공의 목적으로 무료 제공한다면 구민 모두가 유료 폰트 무단 사용에 의한 저작권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러 창작물에 활용된다면 공공복지로서의 가치도 드러낼 수 있다.

둘째, 대덕구 브랜딩이다. 여러 지자체가 도시 브랜딩 개발에 힘쓰고 있는데, 최근에는 폰트도 주목받고 있다. 대표 사례로 고양시 대표 캐릭터인 고양고양이를 딩벳폰트(이미지를 문자화한 폰트, 일종의 그림문자)로 활용한 고양체가 있다. 우리 구도 대표 캐릭터와 폰트를 활용해 소식지나 SNS 카드뉴스 등 다양하게 활용한다면 도시 브랜딩 가치를 높이고 지역 홍보에 한몫할 수 있다.

휘미로 배운 사물놀이로 재능기부끼리

신탄진동 새여울예술단

1997년 창단 새여울예술단, 재능기부 활동 발 벗고 나서
 신탄진 쥐불놀이 축제·동춘당문화제 등 월평균 12회 공연 ‘눈길’
 김치 봉사·연탄 나눔·환경 정화 활동 등 지역사회 둘봄도 적극 참여
 주민 문화·여가 생활 증진 위한 주민자치프로그램 사물놀이·난타 등 운영
 오춘녀 단장 “재능 나눔 통해 함께 행복한 삶 살아가는 변화 경험하길”



징, 꽹과리, 북, 장구 등 우리 고유의 4가지 타악기가 서로 어울려 환상적인 리듬을 선사하는 사물놀이. 여기에 나발, 태평소, 소고가 합류해 신명 나는 놀이판으로 공연자와 관객이 물아일체(物我一體)가 되는 풍물놀이를 보다 보면 어깨춤이 덩실덩실 절로 난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며 아날로그적인 유물로 취급되면서 마땅히 배울 수 있는 곳마저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사물놀이 등을 취미로 배우는 것은 물론 재능기부와 봉사활동까지 펼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및 인근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새여울예술단(단장 오춘녀)은 지난 1997년 4월에 창단, 무려 27년의 역사를 가진 신탄진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풍물단이다.

오춘녀 단장을 비롯해 노점옥 부단장, 한미자 총무 등 임원진과 예술단의 산증인이자 최연장자이신 정인희 고문 등 총 25명의 회원이 새여울 커뮤니티센터 지하 1층에 마련된 풍물실에 모여 연습에 몰두하고 있다. 창단 멤버이자 7년째 단장직을 맡고 있는 오춘녀 단장은 “사실 저희가 처음부터 재능기부를 염두에 두고 모임을 결성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적 시골에서 많이 봤던 우리의 전통예술을 뒤늦게라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매우 컸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새여울예술단의 회원들은 10년 이상의 베테랑 경력자들로 구성됐다. 소위 ‘막내’라고 불리는 회원도 6년 동안 장구 장단을 열심히 연마하면서 예술단 활동에 일조하고 있다.

그저 우리 가락과 장단, 춤사위가 좋아 온종일 꽹과리와 장구, 북, 징 삼매경에 심취된 회원들은 점차 그 화음의 조화를 이뤄가며 사물놀이 공연 완성도를 높여갔다. 실력이 일취월장하면서 2001년 9월 제10회 전국농악경연대회에서 참방상(장려상)수상을 시작으로 2014년 4월 황산벌 전국풍물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는 등 총 15회의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경험이 쌓이면 실력이 늘고 자신감도 커지는 세상의 이치처럼, 회원 모두가 사물놀이 공연을 단순 취미를 넘어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우리만 할 게 아니라 이웃들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공연 기부를 시작하자고 의기투합한 것이다.

작은 동아리에서 출발한 새여울풍물단은 재능기부에 나서게 되면서 사물놀이, 풍물(농악)뿐만 아니라 전통 난타, 뮤직 난타, 강강술래,

민요 등 다양한 장르를 배우고 실력을 연마하는 데 집중했으며, 단체명도 현재의 ‘새여울예술단’으로 변경했다.

새여울예술단은 신탄진동 대표축제인 ‘신탄진 쥐불놀이 축제’를 시작으로 △계족산 무제 △동춘당문화제 △대청호 마라톤 행사 △요양원·복지관·경로당·홀몸 어르신 생일잔치 행사 △각 동별 마을 축제 등 대덕구 전 지역을 다니면서 농악(길놀이), 난타, 강강술래 등 공연을 통해 활발한 재능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리 새여울예술단이 월평균 12회 정도 공연에 나서는데 사전 준비, 공연, 사후 정리까지 마치면 어느덧 한 달이 순식간에 사라지더라고요”라는 오춘녀 단장의 우스갯소리에서 이들의 뜨거운 재능기부 열정이 느껴졌다.



이밖에 예술단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치 봉사 △연탄 나눠주기 △환경 정화 활동 등 한마음 한뜻으로 신탄진동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늘 힘쓰고 노력하고 있다.

신탄진동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에도 사물놀이·난타 등이 포함된 만큼 부담 없이 문을 두드리라는 오 단장은 “사람은 사람과 함께 살아갈 때 참 행복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재능기부를 하면 할수록 삶과 사람을 더 바라보게 되더라고요”라며 “재능기부를 통해 서로의 삶을 공유할 때 우리의 삶은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열심히 배워 새여울예술단원으로 같이 활동해 나눔의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이자 새여울예술단 단원들에게 사물놀이를 교육하는 유금순 강사는 “본인들이 즐기기 위해 나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움의 과정이 조금 늦고 서툴러도 하나씩 몸에 익히시며 큰 성취감을 느끼십니다”라며 “수강생들의 뜨거운 열정에서 오히려 제가 긍정의 에너지를 가득 충전하고 갑니다”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권유했다.

9월 찾아가는 치매 고위험군 집중검진 안내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
가까운 장소에서 치매선별검사 무료로 받으세요~^^

대상 비래동에 거주하는 만 75세 진입자(1949년생)
만 75세 이상 독거 어르신
✓ 치매를 진단받았거나 2024년에 치매검사한 대상자는 해당되지 않음

시간 및 장소 예약필수

동	일정	장소
법2동	연중	대덕구치매안심센터 (대덕구 동춘당로 187, 법2동행정복지센터 3층)
석봉동	2024. 9. 12.(목) 14:00~17:00	북부주민건강센터(치매안심센터 분소) (대덕구 대덕대로 1579, 석봉합문화센터 1층)
송촌동	2024. 9. 5. (목) 14:00~17:00	송촌동행정복지센터 세미나실 (대덕구 동춘당로 94번길 11, 4층)
회덕동	2024. 9. 9.(월) 14:00~17:00	회덕동행정복지센터 회의실 (대덕구 대전로 1376, 2층)
중리동	2024. 9. 30.(월) 14:00~17:00	중리동행정복지센터 회의실 (대덕구 중리남로 47, 2층)

준비물 신분증, (필요시)보청기, 둘보기

전화예약 대덕구치매안심센터 ☎ 042-608-5426

**올해도 꼭!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세요!**

인플루엔자 4가 예방접종 1회 무료 (단,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2회)

대상	접종기간
어르신	75세 이상 (1949. 12. 31. 이전 출생자) 2024. 10. 11.(금) ~ 2025. 4. 30.(수)
	70~74세 (1950. 1. 1. ~ 1954. 12. 31. 출생자) 2024. 10. 15.(화) ~ 2025. 4. 30.(수)
	65~69세 (1955. 1. 1. ~ 1959. 12. 31. 출생자) 2024. 10. 18.(금) ~ 2025. 4. 30.(수)
어린이	생후 6개월 ~ 13세 ※ 예방접종 일정 및 횟수 예진의사와 상담 필요 (2011. 1. 1. ~ 2024. 8. 31. 출생자) 2회 접종 대상자 2024. 9. 20.(금) ~ 2025. 4. 30.(수)
	1회 접종 대상자 2024. 10. 2.(수) ~ 2025. 4. 30.(수)
	임신부 임신 여부를 확인한 임신부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 소지) 2024. 10. 2.(수) ~ 2025. 4. 30.(수)

장소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스미싱 문자 누르면 원터치 쓰리 강녕이

돈 툴툴 개인 정보

대전 경찰청 DAEJEON METROPOLITAN POLICE
대전대덕경찰서 DAEJEON DAEDEK POLICE STATION

**임산부 건강교실 모집 안내
“행복한 기다림”**

행복한 임신 · 건강한 출산을 응원합니다

대상 대덕구에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및 수유부 *신혼부부도 가능

장소 대덕구육아복합마더센터 2층 프로그램실

내용 전문 강사와 함께하는 4주간의 체험형 강의
(태교 및 출산, 신생아 관리, 산후관리, 모유수유, 태교 공예)

모집기간 2024년 4월 ~ 모집완료 시까지

신청방법 전화 또는 방문접수 (선착순 모집)

내용 대덕구보건소 가정보건팀 ☎ 042-608-5484, 5408

**나와 이웃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복지위기 알림 앱”**

복지 위기상황 도움요청을 쉽고 빠르게!

복지 위기상황 도움요청을 쉽고 빠르게!

나에게 도움이 필요해요
+
어떻게 도움이 필요해요
+

QR코드를 스캔하여 앱을 설치하세요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복지위기알림’을 검색하여 다운로드

보건복지부 SSIS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대전광역시 DAEJEON METROPOLITAN CITY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납부 기한 : 9월 16일 ~ 9월 30일

과세 대상 : 주택, 토지

***주택분 : 7, 9월 (½씩 고지)**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게 됨

문의 : 대덕구 세정과 재산세과표팀 (☎ 042-608-6243)

자동차 무상점검 받으세요!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 시

2024. 9. 8.(일) 09:00 ~ 16:00

장 소

대덕구청(주차장)
한국교통안전공단 신탄진자동차검사소(문평동 83-1)

대 상

대전시민 누구나(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차 종

전 승용차, 승합차, 기타 소형차량

주 최

대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대덕구지회, 북부지회)

참여인원

120명(대덕구지회 80, 북부지회 40)

후 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국교통안전공단 신탄진자동차검사소

서비스내용

부동액, 엔진오일, 각종 오일류, 워셔액 점검 후 보충,
전구류 점검 및 교체, 타이어압 점검 및 보충,
배기ガ스 점검 및 조정

이용방법

차량을 직접 운행하여 행사장소(대덕구청, 신탄진자동차검사소)
방문 후 점검자 안내에 따라 차량점검 실시

※ 점심시간(12:00 ~ 13:00)에는 차량점검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문 의

대덕구 교통과 차량운수담당(☎042-608-5271)

연휴기간 : 2024. 9. 14.(토) ~ 2024. 9. 18.(수) / 5일간					
추석 연휴 생활쓰레기 배출안내					
생활쓰레기(쓰레기봉투·음식물쓰레기·재활용품) 배출 일정 안내					
구분	9. 14.(토)	9. 15.(일)	9. 16.(월)	9. 17.(화) [추석]	9. 18.(수)
쓰레기 봉투, 음식물 쓰레기	단독주택, 다가구 등	배출금지	배출가능 (18:00~23:00)	배출금지	배출금지
	공동주택	배출금지	배출가능 (18:00~23:00)	배출금지	배출가능 (18:00~23:00)
재활 용품	단독주택, 다가구 등	정상배출	배출금지	배출금지	정상배출

※ 연휴기간 내에는 일자별 지정된 배출시간을 엄수하시어 기존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주시기 바라며,
상기일정은 변경될수 있습니다.

가로청소 및 대형(건축)폐기물 수거 일정 안내	9. 14.(토)	9. 15.(일)	9. 16.(월)	9. 17.(화) [추석]	9. 18.(수)
가로청소	조기청소 06:00~09:00	휴무	휴무	휴무	정상근무
대형폐기물 건축폐기물	조기수거 07:00~10:00	휴무	조기수거 07:00~10:00	휴무	정상근무

추석 연휴 청소관련 문의

- 청소관련 문의** : 대덕구 자원순환과(☎042-608-6361-2)
-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수거문의** :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042-250-0600)
- 재활용쓰레기 수거문의** : 동양산업 (☎042-931-0145~6)
- 대형폐기물, 건축폐기물 수거문의** : 자원순환센터(☎042-633-4303)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학교 경계

30m 이내 금연구역 확대

학교 절대보호구역(출입문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기존 금연구역 현행유지



※ 2024년 8월 17일부터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